

특집논문(영문학)

영소설 다시 읽기

『숲사람들』의 양식 실험

김 명 환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들어가면서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의 장편소설에서 『귀향』(*The Return of the Native*, 1878), 『캐스터브리지 읍장』(*The Mayor of Casterbridge*, 1886), 『숲사람들』(*The Woodlanders*, 1887), 『더버빌가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1891), 『무명의 주드』(*Jude the Obscure*, 1895)의 다섯 편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는 일에 반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하디 비평사를 살펴봐도 주로 이 작품들이 집중적인 논의 대상이었다. 이 다섯 작품 중에서 다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작품을 하나 고르라면 그것은 다름아닌 『숲사람들』이다. 논의의 빈도가 떨어지는 만큼이나 다른 네 작품에 비해 매력도 덜하고 예술적 성취 역시 뒤쳐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숲사람들』은 극적 갈등과 파국이라는 견지에서 미묘하게 느껴질 면이 많으며, 등장인물 가운데 다른 작품의 주인공처럼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도 드물다. 또 다양한 문학 양식이 활용됨으로써 예술적 통일성에 대한 논란을

주 제 어: 토마스 하디, 『숲사람들』, 멜로드라마, 목가, 사실주의, 비극

Thomas Hardy, *The Woodlanders*, melodrama, pastoral, realism, tragedy

초래하기 쉬우며, 실제 이 작품의 양식 실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작품 이해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과거와 달리 『숲사람들』을 목가(pastoral)적 양식이 지배하는 작품으로 보는 경우는 더 이상 없다. 목가적 요소가 활용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작품은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19세기 사실주의 소설의 면모를 지닌다. 이 점은 어빙 하우(Irving Howe)가 진작에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으며, 나아가 힌톡(Hintock)의 사회상을 충실하게 그리는 ‘풍속소설’(novel of manners)적 특성을 지적함으로써 작품 이해에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106). 이글턴(Terry Eagleton)은 하디의 소설이 후기로 가면서 ‘목가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가운데 『숲사람들』의 경우 목가, 신화, 고전비극, 사실주의 등 서로 다른 문학양식들이 혼용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주의가 우위를 점한다고 본다(94-95). 이와 유사하게, 전체적으로는 작품이 전통적인 서술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다양한 양식들을 자의식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실험적인 하디 소설의 하나라고까지 보는 입장이 있다(Boumelha 100, 113). 자일즈 윈터본(Giles Winterborne)이 죽은 후의 결말부에서 그레이스 멜버리(Grace Melbury)가 남편 에드워드 피츠파이어즈(Edred Fitzpiers)와 화해하는 과정에 멜로드라마(melodrama)적 요소가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그 경험의 성격이 멜로드라마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높으며(Gregor 162-3), 그 밖에도 작품의 후반부에서 블랙 코메디나 소극(farce)적이라 할 요소들도 발견된다(Gregor 164; Ball 19-21). 작품을 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이 사회상을 그리는 희극(social comedy)이라는 주장도 작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양식적 요소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작품 평가의 요체임을 주장하는 셈이다(Bayley 10).

실제 작품에서 화자의 발언이나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문학 양식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온다는 점도 흥미롭다.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참으로 쏘포클레스적인 장엄함과 통일성을 지닌 극”(dramas of a grandeur and unity truly Sophoclean)¹⁾이라는 구절에서는 이 작품을 그리스 비극에 못지않은 차원에서

1) Thomas Hardy, *The Woodlanders* (Harmondsworth: Penguin, 1981), 44면.

바라보려는 하디의 노력이 느껴진다. 한편 차몬드 부인(Mrs. Felice Charmond)은 진료를 핑계로 방문하는 피츠파이어즈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이웃 사람들이 벌써 자신들의 관계를 “소극”(笑劇 252)으로 본다고 말한다. 또 피츠파이어즈와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하면서 다시 만나 남녀로서 서로 이끌리는 그레이스와 자일즈의 대화가 현실의 냉엄함을 잊은 순간만큼은 “사랑이 넘치는 희극”(affectionate comedy 344)이었다는 화자의 발언도 거론할만하다.

이 글은 탁월한 심리분석과 사회현실 해부가 담긴 사실주의적 작품으로서 『숲사람들』이 거둔 성취에 목가와 멜로드라마라는 양식적 요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목가와 멜로드라마는 그 구성이나 등장인물의 성격, 구사되는 문학언어에서 인위적인 정형화가 두드러지는 양식이어서 사실주의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양식적 요소가 사실성을 근간으로 하는 작품에서 발견된다고 할 때, 그것이 작품의 전체적 통일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잘 녹아들어 있지 않다면 굳더더기이거나 결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을 앞세우자면, 작품에 활용된 목가와 멜로드라마적 요소는 작품의 사실성과 어우러져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다고 믿어진다.²⁾

로 작품 인용은 본문의 인용문 뒤에 괄호로 면수만 표시함.

- 2) 목가적 양식이 비교적 논란 없이 판별되는 것에 비해, ‘멜로드라마’와 그 형용사인 ‘멜로드라마적’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개념 규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18세기 말 이래 영국을 포함한 서구 연극사에서 멜로드라마의 전개과정을 살피는 일과 함께 통상적인 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선악의 이분법 등에 근거한 등장인물의 정형성과 그에 따른 선정적 감정 표출, 비현실적인 사건전개나 과장된 극적 상황 등을 주된 특징으로 이 용어를 규정하도록 한다. 멜로드라마에 관한 논의로는 Brooks의 1장 “The Melodramatic Imagination”과 Hadley의 “Introduction” 참조. 또 『숲사람들』의 목가적 요소에 관한 국내 논의는 장정희와 김보원 참조.

2.

많은 평자들이 지적하듯이, 작품 결말부에서 하디가 멜로드라마적인 양식을 채용한 것은 피츠파이어즈 부부의 화해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다. 즉 둘의 재결합은 당사자들에게는 일단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무리임에는 틀림없으나, 독자들이 아무런 유보조건 없이 받아들일만한 바람직한 결말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말부의 멜로드라마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레이스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에 겪는 갈등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그레이스라는 인물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끝까지 탐색한 후에 마침내 그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 무슨 이유로 피츠파이어즈의 세계로 동화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작품의 서술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레이스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자일즈 윈터본을 버리고 의사이자 이방인인 피츠파이어즈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과정은 비교적 선명하다. 그레이스 자신이 도회지에서 받은 교육의 결과로 더 이상 궁벽한 시골의 삶에 적응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딸에게 지체높은 삶을 마련해주려는 부유한 목재상인 아버지 멜버리의 강한 의지도 크게 작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레이스의 의식 속에서 피츠파이어즈와의 혼인이 가져다줄 사회적 신분보다는 “세련되고 교양있는 정신 생활의 가능성”(216)이 더 매력적이라는 점이며, 그것이 피츠파이어즈와 만날 때마다 그의 영향력에 이끌려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덧붙여 이러한 피츠파이어즈의 영향력에는 그의 성적 매력도 크게 작용한다는 암시 역시 주목해야 한다(Ingham 1989 68-69). 특히 최근의 하디 연구에서 계급과 성애(sexuality)의 두 가지 문제가 서로 깊이 연루되어 있음이 종종 강조되는데(Ingham 1996 20-30; Levine 535), 자일즈-그레이스-피츠파이어즈의 삼각관계의 실상은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다. 결혼 직전 그레이스는 우연히 피츠파이어즈의 집에서 아침 일찍 동네의 시골 처녀 수크 댄슨(Suke Damson)

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목격한다. 둘 사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레이스는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아버지에게 피츠파이어즈 아닌 자일즈와 혼인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미 딸의 혼사를 여기저기 자랑함으로써 소문을 낸 멜버리는 몹시 화를 내고, 피츠파이어즈에게 딸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귀뜸해준다. 피츠파이어즈는 금방 사태를 짐작하고 수크 댁슨에 대해 둘러댄 후 결혼 장소를 그레이스의 뜻대로 교회로 정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독거린다. 작중 화자는 그가 “그녀의 의지를 자신의 욕망에 수동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들었다”(224)고 서술한다.(덧붙이자면, 화자는 이 시점에서 피츠파이어즈가 그레이스의 매력 외에도 멜버리의 재산을 의식하고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그레이스는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해명, 즉 수크 댁슨이 새벽에 치통을 못이겨 달려온 것을 치료해주었다는 말에 설득되어 넘어간다. 그러나 이 대목의 전후맥락을 볼 때 독자로서는 석연치 않은 점을 한 가지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수크 댁슨이 피츠파이어즈 집의 현관을 빠져나올 때 그녀가 뒤집어 쓴 외투를 피츠파이어즈가 매만져주는 순간을 그레이스가 목격했는데, 상류층다운 오만한 자세가 몸에 밴 피츠파이어즈가 새벽부터 치통을 호소하며 달려온 미천한 처녀에게 그런 과도한 친절을 베풀 리가 만무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레이스가 남편의 해명을 이 대목에서 진심으로 믿고 넘어간 것은 의식 깊숙이 스스로 자기기만을 행했다고 봐야 옳다. 그만큼 그레이스는 고향사람인 자일즈가 배우자감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낄 만큼 근본적인 감수성의 변화를 이미 겪은 상태에서 피츠파이어즈만이 자신의 삶을 충족시키리라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그레이스의 복잡한 내면은 아버지 멜버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어떤 것이라 할 만하다.

결혼을 앞두고 그레이스는 괴로운 불안감에 시달리며, 누군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음을 슬퍼한다. 주인공에게 믿을만한 의논 상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적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짐작하는 인물이 없다는 사실은 작품 이해에 필요하다. 한 마디로 그레이스는 경계선에 내던져진 인물로서 어느 면 매우 고립된 처지에 있다. 특히 남편이 차몬드 부인에게 빠진 것을 알

게 된 후의 그레이스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변 인물 중에 제대로 이해하는 이가 없다. 가령 멜버리의 경우, 비교적 일찍 사위의 외도를 알게 되지만 딸의 내면에 대해서는 잘 짐작하지 못하며 난감한 상황 앞에 무기력하기까지 하다. 아버지는 그저 딸이 질투심을 느낄지 아니면 분노하고 있을지 궁금해한다. 질투나 분노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서적 반응인 동시에 멜로드라마의 극적 전개가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며, “나는 상류층 삶을 혐오해요!”(279)라는 말로 아버지를 고통과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실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후 그레이스의 반응은 멜로드라마의 전형적 상황설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레이스는 의혹이 자신에게 불러일으킨 분노가 강하지 않음에 놀랐다. 그녀는 별로 흥분되지 않았고, 질투심은 거의 없다고 할 지경이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지닌 성격을 보여주었다. 사실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피츠파이어즈에게 가졌던 생각은 연인에 대한 애뜻한 염려라기 보다는 우월한 존재에 대한 경외(敬畏)의 성격이 짙었으며, 그의 과거, 학식, 직업적인 기술, 개인적 신념에 대한 신비감과 생소함을 밑에 깔고 있었다. 그런 생각은 함께 생활하면서 가까워진 까닭에 사라져버리고, 그녀는 남편이 험독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지속적이고 미더운 사랑을 위한 새로운 토대, 즉 각자의 약점이 두 사람을 보호하는 동맹의 근거가 되는, 서로 의지할 공감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츠파이어즈는 부부간의 제2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실한 신뢰감과 진실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다.(258)

또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결혼을 후회하며 무심코 내뱉은 혼잣말을 듣고도 그레이스는 태연하다. 남편 피츠파이어즈는 아내가 자신의 모욕적인 말을 분명히 들었기에 아침 식사 자리에서 큰 다툼이 있으리라 예상하지만, 아내는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화자는 그녀가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묘사하는데, 즉 결혼 생활의 경험을 통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순수한 자일즈에 대

한 관심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남편이 차몬드 부인과 함께 힌톡을 떠나 애정 도피를 한 후에 그녀는 기혼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일즈 쪽으로 돌아선다.

『숲사람들』은 하디 장편 중에서 이혼의 가능성이 극적 전개에서 큰 역할을 하는 첫 작품으로서 결혼이라는 제도의 근거 자체를 묻는 데까지 나아간다(Boumelha 106). 물론 1857년에 개정된 결혼법에 따를 때 피츠파이어즈의 외도와 도피행각은 아내의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질 정도로 충분히 잔인한 것이 되지 못했으며,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한 그레이스 부녀의 이혼에 대한 기대는 그릇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희망을 걸면서 그레이스는 자일즈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향한 합법적이지 못한 사랑의 성적인 측면까지도 조심스럽게 그려지는 것이다(Ingham 1989 69-72).

그러나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리라는 그레이스의 굳은 결심이나 자일즈를 대하는 심경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곱게 자란 여성의 부족한 경험과 좁은 상상력의 범위에 국한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차몬드 부인과 단 둘이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녀로부터 피츠파이어즈와 육체관계까지 맺었다는 고백을 듣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의 성적인 면모는 어디까지나 그녀의 성품이 지닌 한계 내에 서만 발휘되며, 그 한계는 시골 출신의 젊은 여성다운 순박함에다가 체통을 중시하는 계층의 가식이 겹쳐진 형국이라 할만한 요소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항상 유의할 점은 화자의 시선이 이런 그레이스의 면모를 쉽사리 비판하거나 풍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레이스를 포함한 등장인물들을 대화나 심리묘사 등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높은 사실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은 좀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레이스는 남편과의 법적 이혼이 확실하다는 잘못된 전갈을 굳게 믿고 자일즈를 점점 더 살갑게 대한다. 자일즈는 그레이스의 이혼이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알게 된 직후, 그 사실을 모르는 그레이스의 다정한 태도에 넘어가 자신도 어찌지 못하고 그녀와 격정

적인 입맞춤과 포옹을 나눈다. 그러나 곧 멜버리가 나타나 이혼할 수 없다는 암울한 사실을 통고하는데, 이를 접한 그레이스의 내면은 나중에 이렇게 묘사된다.

그[자일즈]의 애정표현은 달콤했지만 짧았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내가 너무 스스로 나서서 애정을 표시했다고 홍보지는 않을까? 어떻게 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했던 것일까?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무지를 속으로 탓했다. 그러나 마음 깊숙이 그녀는 자신이 [이혼이 불가능함] 몰랐던 때문에 잠시 누린 행복을 조금은 축복했던 것이다.(358)

당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레이스에게 자일즈를 향한 성적 이끌림은 어디까지나 그와의 합법적 혼인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자일즈와 재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레이스는 그에게 성적으로 이끌림을 아예 부정하고 외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상류층의 문화에 물든 그레이스는 자일즈가 여자인 자신이 애정을 표현한 것을 부정적으로 볼까봐 저어하는 마음도 숨기지 못하는데, 이는 자일즈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기우에 불과하며 그레이스의 인습에 얽매인 사고방식을 드러낼 뿐이다.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독자는 그레이스의 마음이 남편에게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지가 남아 있음을 보게 된다. 피츠파이어즈가 숲 속에서 마주친 멜버리에게 장인인 줄도 모르고 비몽사몽 간에 자신의 결혼에 대한 후회와 불만을 늘어놓자, 참지 못한 멜버리가 그를 말 위에서 집어 던진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피츠파이어즈는 그대로 달아나 차몬드 부인의 집에 숨었다가 돌이켜 멀리 떠나고 만다.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은 그레이스는 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잠시 자일즈 윈터본을 잇는다. 그녀는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헛소문을 듣고 달려온 수크 댄슨과 차몬드 부인을 두고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그[피츠파이어즈]는 누구에게나 정말 매력적이구나. 정말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지.” 다른 여자와의 경쟁에 자극을 받아서, 바로 이 생각은 피츠파이어즈가 최소한의 반응만 보여주었더라면 그에 상응하는 감정으로 열마든지 바뀔 수도 있었다. 실상 그녀의 마음에는 날아오르길 열망하는 사랑의 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새는 절실하게 보금자리가 필요했던 것이다.(323)

물론 곧 이어 남편의 냉랭한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이제 막 생겨난 불꽃”(331)은 여지없이 꺼져버리고 만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적절한 조건만 마련된다면 여전히 남편 피츠파이어즈의 세계로 돌아갈 인물인 것이다. 아무리 남편에게 등을 돌린 상태라 하더라도 당대의 기혼여성으로서의 합법적 배우자에게 아예 무심해질 수 없음은 당연하겠지만, 그레이스가 여전히 피츠파이어즈의 매력이 미치는 자장 안에 머문다는 점은 결말에 대한 중요한 복선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그레이스는 이혼만 성사된다면 전혀 다른 삶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화자는 앓아 누운 딸을 두고 이혼을 통해 자유만 얻으면 딸이 다시 꽃피어날 것이라는 멜버리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말함으로써 그 점을 분명히 한다. 그레이스가 당대 인습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는 당대의 법을 포함한 냉엄한 현실의 압박인 것이다.

3.

많은 평자들이 지적하듯이 43장에서 자일즈가 죽은 후 그레이스가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48장까지 작품 전체 분량의 1/8 정도에 해당하는 결말부는 멜로드라마적 성격이 확연하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는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차용함으로써 피츠파이어즈 부부의 화해가 지닌 한계, 달리 말해 경계선에 선 삶의 모순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회피하는 최종적인 선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를 뒤우쳤다고 하지만 장차 다른 여자들을 넘보게 될

것이 틀림없을 사위의 성품에 대한 멜버리의 냉소적인 마지막 발언 역시 두 사람의 재결합이 지닌 약점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다.

이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분석하기에 앞서 자일즈가 죽는 대목이 멜로드라마와 연관하여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레이스는 차몬드 부인과의 애정도피가 막을 내린 후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피해 한동안 친구 집에 가서 지낼 요량으로 도망친다. 그녀는 밤중에 먼 길을 가기 위해 자일즈의 길잡이를 청하려고 그의 거처를 찾아간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 길을 가기 어렵게 되자 자일즈는 자신의 한 칸짜리 오두막을 그레이스에게 내주고 비 오는 날씨에 밖에서 며칠 지내다가 열병이 악화되어 죽는다. 이러한 사건 전개는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작품의 결점이라 볼 소지가 많다.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선악 이분법에 근거하여 자일즈를 선하기만 한 남성으로 몰고 가는 설정이라고 판단할 법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이혼이 사실상 금지된 당대 현실이 반영된 절대적 한계로서 자일즈의 허무한 죽음을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 장면을 멜로드라마로 보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많음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우선 돌아오는 남편 피츠파이어즈를 피해 한밤중에 멀리 떨어진 친구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레이스로서는 자일즈 외에는 마땅히 도움을 청할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 그녀가 자일즈와 대면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방의 불빛이 그녀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문지방을 건너서 자신의 두 손으로 그녀의 두 팔을 잡았고, 놀라움, 기쁨, 두려움, 슬픔이 차례로 그의 마음 속을 지나갔다. 그레이스도 마찬가지로였다. 이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만났다는 행복한 사실이 있었다.(365)

적어도 첫 순간에는 두 사람이 법과 윤리규범을 잠시 잊고 다시금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레이스가 왜 자신이 이렇게 밤중에 길을 나섰는지 설명하면서 신뢰할 사람이 자일즈 밖에 없음을 비치며 도움을

청하자, 그는 그레이스의 뜻밖의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 당장 이해한다. 또 그는 이전에 그레이스의 이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를 아직 모르던 그녀와 입맞춤을 나눈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바로 이 순간 그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자제한 채 신의를 지키려고 굳게 마음 먹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사랑을 잃고 병치레를 한 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의 죽음이 예고된다고 할 만하다. 또 그레이스가 갑자기 열병이 악화되어 혼수상태에 빠진 자일즈를 발견하고 그를 오두막으로 데려와 간호하면서 (위급상황이긴 하지만) 당대의 윤리와 예의범절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녀는 자일즈를 치료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의사가 돌아온 남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주저없이 직접 찾아가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다. 자일즈가 죽는 대목이 극단적인 상황 설정이라는 면에서는 멜로드라마적이라고 할 측면이 없지 않지만, 바로 이런 멜로드라마적 요소들이 등장인물들의 절박하고 실감나는 심리나 그에서 비롯되는 행동을 적절하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내도록 계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레이스는 돌아온 남편에게 마치 자신이 자일즈와 육체관계를 맺기라도 한 것처럼 거짓을 말한다. 피츠파이어즈도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지낸 줄 알고 얼굴이 백지장으로 변할 정도로 경악한다. 그는 마티 싸우스(Marty South)를 통해 진실을 곧 알게 되지만, 어쨌든 아내가 자신의 외도에 대해 그 정도로까지 보복을 할 줄 몰랐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이같은 그레이스의 태도를 빅토리아시대의 엄격한 규범에 아랑곳하지 않는 당찬 독립적 여성의 모습이라고 볼 소지도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자일즈를 집 밖에 머물게 했다는 점에서 기성의 윤리규범에 여지없이 얽매인 여성인 것이다.

하디의 냉철한 현실인식과 절묘한 형상화는 바로 이 대목에서 빛난다. 즉 그레이스의 태도가 오히려 피츠파이어즈로 하여금 아내에게 새롭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레이스가 죽은 자일즈를 두고 “나는 그 가 나를 사랑하도록 부추겼어요”(415)라고 면전에서 거침없이 말할 때, 피츠파이어즈는 눈에 떨 정도로 움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치욕과 후회의

감정이 차차 아내에 대한 감탄으로 바뀌어가며, 남편으로서 아내와 화해를 시도할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법적인 남편을 모욕하고 무시한 그레이스의 언행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부의 화해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셈인 것이다.

부부의 화해를 예비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피츠파이어즈가 아내에게 준 신통한 약이다. 자일즈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피츠파이어즈는 그레이스에게 (이탈리아에서 구해온) 해열제를 주면서, 환자와 접촉했으니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그녀도 위태롭다며 복용을 권한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무시한 그레이스는 자신도 병이 나자 결국 약을 먹게 되며, 그 덕에 쉽게 회복된다. 그녀는 남편이 이런 능력을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남편이 자신에게 약을 준 이유는 아마 의술을 뽐내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씩씩하게 되뇌인다. 어쨌든 이 해열제의 일화 또한 피츠파이어즈가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됨은 부인하기 어렵다.

처음에 그레이스는 남편과 화해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자일즈를 남몰래 사랑한 마티 싸우스와 함께 그의 무덤을 찾는 일에만 전념한다.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피츠파이어즈는 해가 바뀌어 성 발렌타인(St. Valentine)의 날에 이르러서야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구애를 시도한다. 그레이스는 이 편지가 남편에게 거의 처음으로 받은 연애편지임을 깨달으며, 그가 연애편지를 참 잘 쓴다고 느낀다. 그레이스는 마침내 답장을 보내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그와의 만남을 허락하며 결국 둘은 정기적으로 남의 눈을 피해 만나기 시작한다. 그레이스가 남편의 편지에 답장을 하는 대목부터 작품은 점차 멜로드라마적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한다.

어느 날 이민을 앞두고 피츠파이어즈를 잊지 못해 티를 내는 아내 수크에 화가 난 팀 탕즈(Tim Tangs)는 피츠파이어즈를 혼내주려고 밀렵자를 잡기 위해 쓰던 덫(man-trap)을 그레이스와 피츠파이어즈가 자주 만나는 장소에 몰래 설치한다. 그러나 엉뚱하게 그 덫에 걸려 옷이 찢기는 사고를 당하는 것은 피츠파이어즈가 아닌 그레이스이다. 두 남녀는 난데없는 봉변에 크게 놀라지만, 이 우연한 사건이 두 부부를 완전히 화해시켜준다. 덫이 놓인 장소에 아내보다 한 발 늦게 도착한 남편이 아내의 찢긴 옷자락을 발견하고 경악과 염려의

비명을 지르자, 잠시 숲에 몸을 숨겼던 아내는 진심어린 남편의 반응에 마음이 완전히 풀리고 만 것이다. “오, 에드리드, 오늘밤 우리 둘을 굽어본 하나님의 눈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감사해야 해요.”(428)라는 그레이스의 발언은 과장된 감정으로 독자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아이러니컬한 효과를 내는 동시에 두 인물이 연출하는 자기만족적인 멜로드라마의 분위기를 잘 드러낸다(Gregor 164).

여기서 강조할 점은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절묘하게 활용될 뿐이지 장면 전체가 멜로드라마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레이스와 피츠포이어즈 두 사람 나름으로는 감격에 찬 애정의 확인 앞에서, 화자의 목소리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텃의 “낮은 스프링이 행여 심한 부상을 입힐 수 있었을까의 심할 수도 있지만”(428)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 사람에 대한 공감을 유보한다. 또 하나님 운운하는 그레이스의 말에 남편은 “당신은 나의 것이요, 이제 다시 나의 것이요!”(428)라며 맞장구치지만, 역시 그답게 종교적인 신앙심을 내비치지 않는다. 애초에 그는 결혼이 교회와 무관한 “민간의 계약”(civil contract 218)이라면서 교회에서 혼인하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인 것이다. 남편을 만나러 나오기 직전 기도서의 결혼서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두 남녀를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대목 앞에서 자신의 결혼이 되돌이킬 수 없음을 새삼 곱씹는 그레이스는 신앙심 깊은 인물이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성향은 자일즈나 마티의 소탈한 민중적 감수성과도 거리가 멀고 피츠포이어즈같은 ‘현대적인’ 인물의 감수성과도 동떨어진 것으로서, 한때 그녀가 보여준 인습을 뛰어넘을 듯한 진취적인 면들을 무화시키고 만다.

요컨대, 『숲사람들』은 성애의 측면을 포함한 남녀관계의 실상에 대해 당대로서는 파격적일 만큼 사실성을 추구하면서 멜로드라마적 요소를 적절하게 차용하여 깊이있는 리얼리티를 얻는다. 자일즈의 오두막에서 벌어지는 파국적 사건이나 텃에 다칠 뻔한 일화를 계기로 이루어진 피츠포이어즈와 그레이스의 재결합에서 그러한 예술적 성취는 두드러진다. 그레이스는 심각한 인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편 피츠포이어즈의 세계를 택하고 기성규범과 타협한 인습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자일즈가

죽는 과정에서 절정에 달한 그녀의 복잡하고 당찬 면모를 독자가 쉽게 읽기는 어려우며,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서는 그런 면모가 열매를 맺기 불가능함을 냉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이 작품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다.

4.

그레이스는 사회적 신분 상승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덕분에 누린 남다른 교육에서 얻은 감수성에 충실하게 피츠파이어즈와 화해를 이룬다. 거꾸로 말해, 그것은 그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또 한때 이혼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면서 그러했듯이 자일즈에게 진심으로 이끌린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일즈와 마티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작중 화자의 시선과 어조는 분명히 자일즈와 마티의 세계에 더 공감을 보인다. 그러나 그 세계가 현실적으로는 피츠파이어즈가 대표하는 세계에 패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냉엄한 인식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목가풍의 만가(輓歌 pastoral elegy)의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레이스-피츠파이어즈가 내보이는 삶의 편협함이 자일즈와 마티의 세계가 지닌 소탈하고 건강한 면모와 대극을 이루는 것은 틀림없다. 이 점을 우리는 작품에 활용된 목가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밝혀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남편과 멀어진 후 자일즈를 향한 관심이 살아난 그레이스의 눈에 비친 자일즈의 모습을 살펴보자.

그는 가을의 형제라도 되는 듯이 보였고, 그런 향기를 풍겼다. 그의 얼굴은 별에 그을려 밀 빛깔이었고, 눈은 옥수수꽃처럼 푸른 빛이었으며, 소매와 각반은 과일즙으로 끈적거렸으며, 모자에는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고 차림새의 구석구석에는 과수원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에게 계절이 처음 시작될 무렵에 느껴지는 형용할 수 없이 매혹적인 사과즙의 분위기가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누군가의 손에 붙잡혔다 놓여난 나뭇가지처럼

이제까지의 슬픔에서 풀려났다. 그녀의 오감(五感)은 치장되지 않은 자연으로 갑자기 돌아옴에 흥겨워졌다. 남편의 직업 때문에 점잖아야 한다는 의식, 일류 학교에서 배운 가식의 껍질은 내동댕이쳐졌고, 그녀는 숨어 있던 옛날의 본능에 따르는 야생의 시골 처녀가 되었다.

자연은 풍요롭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에드리드 피츠파이어즈에 의해 내동댕이쳐지자마자, 기사도에 걸맞고 희석되지 않은 남성다움을 체현한 다른 존재가 땅에서 솟아나 그녀 손이 미치는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부추기고 싶지 않은 상상력의 탈선이었다.(261)

위의 인용문에서 특히 “그녀의 오감(五感)은 치장되지 않은 자연으로 갑자기 돌아옴에 흥겨워졌다”까지는 농촌 현실의 갈등과 모순을 아름다운 풍경 뒤에 묻어 버리는 전형적인 목가풍의 표현이며, 그레이스의 감수성이 얼마나 자일즈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소원해졌느냐를 암시한다(Gregor 159-60). 특히 자일즈의 실제 현실과 유리된 상상력과 감수성이 이 시점에서 그에게 이끌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상상력의 탈선”은 개별 인간의 차원에서는 넘어설 길이 없는 사회현실의 계급적 분열을 감지하게 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그레이스의 생각이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 넘겨버리기 곤란할 정도로 옛 애인의 구체적인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옳다(Goode 103).

이렇게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일화는 의미심장하다. 피츠파이어즈의 외도를 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일즈가 무심코 그레이스가 가슴에 단 꽃에 손을 내밀어 쓰다듬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기혼녀에 대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이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자일즈를 당혹케 한다. 자일즈는 자일즈대로 부지중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 얼굴을 붉히며 스스로에게 화를 낸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군!” 자일즈는 격렬하게 외쳤다.

“아, 이전에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감정이 들끓어 그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아니야,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었어! 내가 너무 나무란 거야.”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지 않았더라면 내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텐데, 얼마 전 미들턴에서.” 그는 잠시 후에 생각에 잠겨 말했다.

“누구 얘기지?”

“묻지 마오.”

그녀는 찬찬히 그를 살펴보았다. “난 잘 알고 있지.”라고 무관심한 듯이 그녀는 대답했다. “내 남편이었겠지, 그리고 여자는 차몬드 부인이고.(후략)”(263)

여기서 우리는 그레이스와 자일즈가(각자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사회규범과 현실적 조건의 냉엄한 압력을 생생하게 느낀다. 이렇게 주요인물 간의 대화에서 구현되는 섬세한 사실성은 위에서 인용한 목가적 요소들과 어울리면서 하다가 노린 효과를 십분 발휘하는 것이다.

남편이 차몬드 부인과 도피한 후 앓아누운 그레이스를 묘사하는 다음 대목에서 그녀의 비현실적인 태도는 더욱 상투적인 목가풍으로 표현된다.

그녀는 회복되는 동안 윈터본을 전혀 보지 못했다. 아마 이 때문에 그녀의 상상은 만약 그가 구체적인 사람됨으로부터 떼놓을 수 없는 흠과 결점들을 지닌 채 눈앞에 서 있었다면 생각할 수 없었을 낭만적인 모습을 그에 관해 그려냈다. 그녀의 머리 속에서 그는 과일의 신과 숲의 신으로 변갈아 나타났다. 때로는 조림지(造林地)의 싱싱한 나뭇가지들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처럼 나뭇잎들이 몸에 달라붙고 녹색 이끼로 얼룩덜룩한 모습이었고, 때로는 블랙모어 계곡에서 사과즙을 만든 후 큰 통과 압착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만났을 때처럼 사과즙이 몸에 얼룩지고 사과씨가 별처럼 여기저기 붙은 모습이었다.(341)

이에 반해, 자일즈와 마티가 숲 속에서 함께 노동하는 모습을 그린 다음 장

면은 얼핏 보기에 동일한 목가풍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레이스의 관념적인 몽상과 극히 대조적이다.

일반 사람들은 힌톡 숲이라고 부르는 수액(樹液)과 잎의 찬탄할만한 세계에 심상한 시선을 던질 뿐이지만, 이들 두 사람 자일즈와 마티는 밝은 눈빛으로 그 숲을 살폈다. 그들은 숲의 미세한 신비들을 평범한 지식인 양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낯선 상형문자처럼 알기 힘든 측면들을 평범한 글처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 뻑뻑한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겪는 밤, 겨울, 바람, 폭풍우의 모습과 소리들이 — 그레이스라면 불길하거나 심지어 초자연적인 기미를 느껴졌지만 — 그 원인과 지속성, 법칙들을 다 예측하는 간단한 사건들일 뿐이었다. 그들은 나무를 함께 심었고, 함께 나무를 베었다. 함께 그들은 계절에 따라 저 희미한 기호들을 머리 속에 새겨 넣었는데, 그것들은 몇 개씩 보면 고대문자처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모두 합쳐 보면 뜻이 통하는 글자를 이루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에 숲을 지나갈 때 작은 나뭇가지가 가볍게 얼굴을 때리면 그 가지가 번어나는 나무의 종류를 말할 수 있었고, 바람이 큰 나뭇가지를 스쳐가는 소리를 들으면 멀리 떨어진 그 나무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무동치를 한번 보면 그 속이 실한지 아니면 이제 막 썩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었고, 나무 윗가지의 상태를 보면 뿌리가 도달한 지층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그들은 계절의 신기한 변화들을 구경꾼의 관점이 아닌 마법사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399)³⁾

3) 참고를 위해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 casual glimpses which the ordinary population bestowed upon that wondrous world of sap and leaves called the Hintock woods had been with these two, Giles and Marty, a clear gaze. They had been possessed of its finer mysteries as of commonplace knowledge; had been able to read its hieroglyphs as ordinary writing; to them the sights and sounds of night, winter, wind, storm, amid those dense boughs, which had to Grace a touch of the uncanny, and even of the supernatural, were simple occurrences whose origin, continuance, and laws they foreknew. They had planted together, and together they had felled; together they

원문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나지만, 위 인용의 첫 문장은 마치 다른 외국 어에서 힘들게 직역해놓은 듯한 어색한 구문이며, 그만큼 서투르다고 해도 좋다(Brown 75-77). 그러나 이어 나오는 시적인 문장들은 하디의 문체가 달성한 최고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것을 가능케하는 현실이 점차 사라져감을 지켜보면서 재창조하는 것이 작가의 절실한 관심사였음이 여기서 잘 드러난다(Williams 257-58). 또 첫 문장의 어색함은 작가가 그런 관심사를 문학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만하다. 이런 대목을 농촌의 사람들을 이상화하는 목가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루하루 땀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리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⁴⁾ 이와 관련하여 헨톡의 숲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had, with the run of the years, mentally collected those remoter signs and symbols which seen in few were of runic obscurity, but all together made an alphabet. From the light lashing of the twigs upon their faces when brushing through them in the dark either could pronounce upon the species of the tree whence they stretched; from the quality of the wind's murmur through a bough either could in like manner name its sort afar off. They knew by a glance at a trunk if its heart were sound, or tainted with incipient decay; and by the state of its upper twigs the stratum that had been reached by its roots. The artifices of the seasons were seen by them from the conjuror's own point of view, and not from that of the spectator.

- 4) 비슷한 대목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일즈를 묘사하는 다음의 구절도 기억할만하다.

He had a marvellous power of making trees grow. Although he would seem to shovel in the earth quite carelessly there was a sort of sympathy between himself and the fir, oak, or beech that he was operating on; so that the roots took hold of the soil in a few days. When, on the other hand, any of the journeymen planted, although they seemed to go through an identically similar process, one quarter of the trees would die away during the ensuing August.(105)

얇은 목가의 처녀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위적인 작용이 가해지는 조림지(the plantations)라는 점도 기억할만하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목에 담긴 목가적 요소들은 자일즈와 그레이스라는 두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지만 매워질 수 없는 간극을 팝진하게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물론 두 주인공과 관련된 대목에서만 목가적 요소들이 동원되는 것은 아닌데, 작품 전반에 걸쳐 그때그때 섬세한 변주가 행해짐을 주목해야 옳으며 작품 초반부인 7장의 자연묘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Wotton 98-102).

7장 첫머리에서 힌톡의 짧은 환절기에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듯한 독특한 계절의 풍취는 고향을 오래 떠나 있던 그레이스에게는 마치 “복원된 옛 그림”(an old painting restored 93)처럼 느껴진다. 이는 고향의 자연과 거리가 떨어진 동시에 고향사람들의 노동하는 세계와도 떨어진 그레이스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더구나 그레이스가 워낙 노동하는 계층이 아닌 바에는 그런 괴리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이어 빨감 경매장을 향해 걸어가는 멜버리와 그레이스 부녀 주위를 배회하는 다람쥐들이 멜버리를 보고 마치 “당신은 목재상인일 따름이니 총이 없지요”(93)라고 놀리는 듯하다는 구절이나, 눈발이 약간 휘날리자 다가오는 겨울에 놀란 로빈새 한 마리가 사람들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팔려나갈 빨감나무 위에 내려 앉아 뺱부스리기를 기대한다는(두어 페이지 뒤에 나오는) 대목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안온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러나 이 두 목가적인 대목 사이에 우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자연묘사가 개재됨을 놓치기 어렵다. 어린이 동화에 나올 법한 신비한 숲을 연상시키는 묘사가 나오다가 곧바로 숲의 구체적 모습을 “도시 빈민가의 타락한 대중들”에 빚대면서 “앞사귀는 모양이 뒤틀리고, 그 굴곡은 손상되었으며, 차차 가늘어지는 가지의 모양은 중도에 끊겨버렸다. 지의(地衣)는 즐거이의 활력을 갉아 먹었고, 담쟁이덩굴은 잘 자랄 어린 나무를 서서히 목졸라 죽였다.”(93)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는 명백히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을 느끼게 한다.⁵⁾ 이런 대목들은 어조의 변화가 매우 미묘하여 분석하기가 까다로우며, 그

다성적(多聲的)인 특징을 그때그때 잘 음미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예로 든 대목 외에도, “이웃한 숲의 너무 울창한 가지들이 서로 마찰하면서 상처를 입히는 킁킁거리는 소리”(54)라든가, “그 옆에는 더 많은 나무들이 몰려 있었는데, 생존을 위해 싸우는 가운데 가지들이 서로 마찰되고 부딪혀서 생긴 상처로 흉하게 되어 있었다”(378) 등 적지 않은 대목들이 가차 없는 생존투쟁의 현실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목가적 아름다움과 무관한 나무와 숲의 묘사가 하디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쏟았던 당대의 다원주의나 자연주의적 교조와 연관되어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작품의 구체적 맥락에서 이 표현들은 숲을 떠올릴 때 흔히 연상되는 ‘아카디아’(Arcadia)나 ‘아든’(Arden)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충실한 현실탐구에 꼭 필요한 만큼만 목가적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는 제어장치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이런 대목들이 하디의 개인적인 비관주의가 작품에 부당하게 간섭함으로써 흠집을 남기는 사례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5.

문학적 양식의 활용 문제를 중심으로 『숲사람들』을 살펴볼 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쟁점이 하나 남는다. 작중 화자는 작품 첫머리에서 외진 시골에서도 “그곳에 사는 이들의 진한 열정에다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삶으로 인해 참으로 쏘포클레스적인 장엄함과 통일성을 지닌 극이 실제로 벌어진다”(44)고 말한다. 이제까지 멜로드라마와 목가의 적절한 변용을 통해 작가가 충실한 현실탐구를 이룩했음을 살폈다면, 과연 그것은 비극이라는 양식과 연관해서는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까지 판단해야 마땅한 것이다.

5) 19세기 영소설에 미친 다원 사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Gillian Beer(2000) 참조. 위의 대목은 다원 외에도 쇼펜하우어(Schopenhauer) 철학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Goode 96).

글의 첫머리에서도 말했지만, 『숲사람들』의 여주인공 그레이스는 『귀향』, 『테스』, 『जू드』에서와 달리 결국 매우 산문적인 삶을 살고 마는 인물이며, 그녀의 궤적은 쏘포클레스의 비극에 비견될만한 점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물, 혹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디는 쏘포클레스의 비극을 언급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미친한 산골 사람들에 대한 애뜻한 공감을 표출하는 수사에 불과한 것일까?

크레이머(Dale Kramer)는 이와 관련하여 『숲사람들』에서 작중 인물 중 누구도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극적 성격이 유지된다는 흥미로운 발언을 한다(xi). 이 작품에서 장렬한 극적 파멸을 통해서 비극에 걸맞은 주인공의 지위를 획득하는 인물은 아무도 없다. 자일즈의 희생적인 죽음도 독자가 보기에는 기성 규범의 틀 안에서만 영웅적인 행위일 뿐이다. 또 앞서 분석했듯이, 그레이스는 매우 인상적인 내적 갈등과 현실의 구속을 뛰어넘을 행동의 단초를 보여주긴 하지만, 결국은 멜로드라마의 틀에 갇힌 중산층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만다.

그러나 자기 삶의 한계와 협소함을 예리하게 의식하고 저항하지만, 결국 객관적 조건에 의해 강요되는 편협한 삶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물에게도 비극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레이스와 자일즈의 삶, 피츠파이어즈나 멜버리의 삶도 모두 일정하게 비극적 차원을 지닌다고 봐도 좋을 것이며, 그런 차원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파고든 것이 바로 하디의 심도 있는 현실탐구인 것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이해와 평가 사이의 뚜렷한 간극을 숨김없이 형상화함으로써 이 소설은 높은 수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Kramer xx). 가령, 작품의 섬세하고 충실한 서술구조를 따라가면서 독자는 그레이스의 삶의 궤적, 즉 그녀가 남편의 세계로 귀의하는 과정의 필연성을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녀의 최종적 선택에 대해서는 뚜렷한 비판적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그레이스라는 인물을 통해 작가인 하디가 경계선의 삶에 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탐구했다는 주장도 귀기울일만하다(Bayley 15-16).

마지막으로 빠뜨리지 말 것은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마티의 위상이다. 작품

은 그레이스가 피츠파이어즈의 품으로 돌아간 뒤 홀로 자일즈의 무덤을 찾아 온 마티의 독백으로 끝난다. 그녀는 한낱 주변적 인물이지만,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마무리하는 인물로서 의미심장하다. 항상 노동의 현장에서 자일즈와 가까웠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마티는 결코 자일즈에게 사랑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제 죽은 자일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영원히 자신의 것이며 그를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말하는 마티의 대사에서 헌투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동 운명을 읽는 것은 지나친 일일까. 다만 마티가 진정으로 비극의 주인공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테스』의 테스(Tess Durbeyfield)나 『쥬드』의 쉰우 브라이드헤드(Sue Bridehead)의 등장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보원. 「목가(牧歌)의 관점에서 살펴본 하디 소설의 전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27 (1999): 141-56.
- 장정희. 「토마스 하디의 『숲의 사람들』과 목가」. 『근대영미소설』 3 (1996): 211-33.
- Ball, David. "Tragic Contradiction in Hardy's *The Woodlanders*". *ARIEL: A Review of International English Literature* 18:1 (1987): 17-25.
- Bayley, John. "A Social Comedy? On Re-reading *The Woodlanders*". *Thomas Hardy Annual* 5 (1987): 3-21.
- Beer, Gillian. *Darwin's Plots: Evolutionary Narrative in Darwin, George Eliot and Nineteenth-Century Fiction*. 2nd ed. Cambridge: Cambridge UP, 2000.
- Boumelha, Penny. *Thomas Hardy and Women: Sexual Ideology and Narrative Form*. Madison: U of Wisconsin P, 1982.
- Brooks, Peter.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Balzac, Henry James, Melodrama, and the Mode of Excess*. New Haven: Yale UP, 1976.

- Brown, Douglas. *Thomas Hardy*. 1954. Westport: Greenwood, 1980.
- Goode, John. *Thomas Hardy: The Offensive Truth*. Oxford: Basil Blackwell, 1988.
- Gregor, Ian. *The Great Web: The Form of Hardy's Major Fiction*. London: Faber & Faber, 1974.
- Hadley, Elaine. *Melodramatic Tactics: Theatricalized Dissent in the English Marketplace, 1880-1885*. Stanford: Stanford UP, 1995.
- Hardy, Thomas. *The Woodlanders*. Harmondsworth: Penguin, 1981.
- Howe, Irving.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67.
- Ingham, Patricia. *The Language of Gender and Class: Transformation in the Victorian Novel*. London: Routledge, 1996.
- _____. *Thomas Hardy*.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89.
- Kramer, Dale. "Introduction". *The Woodlanders*. Oxford: Oxford UP, 1985. xi-xxi.
- Levine, George. "Shaping Hardy's Art: Vision, Class, and Sex." *The Columbia History of the British Novel*. Ed. John Richetti, John Bender, Deirdre David, & Michael Seidel. New York: Columbia UP, 1994. 533-59.
- Williams, Raymond. *The Country and the City*. 1973. Frogmore: Paladin, 1975.
- Wotton, George. *Thomas Hardy: Towards a Materialist Criticism*. Goldenbridge: Gill and Macmillan, 1985.

ABSTRACT

Literary Experiments in Thomas Hardy's *The Woodlanders*

Kim Myung-hwan

To evaluate experiments of different literary modes in Thomas Hardy's *The Woodlanders* will contribute to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novel and of Hardy's later fictional development as well. This paper aims to analyze pastoral and melodramatic elements we find in the text, and to prove how Hardy succeeds in manipulating these two conventional modes for creating a life-like portrait of Hintock's social life.

Melodramatic elements we see in Grace's reconciliation with her husband, Edred Fitzpiers, have often been taken as anti-climatic flaws, but on closer examination we find them to be effective means for depicting Grace's precarious life on the borderline. Despite her heartfelt mourning over her dead lover, Giles Winterbourne, Grace is finally won over to her estranged husband's side. However, Hardy shows the limitations of Grace-Fitzpiers by introducing melodramatic mode that exactly corresponds to the couple's narrow outlooks on life, which, in turn, strengthens dominant realistic mode portraying tragic clashes between opposing ways of life.

It is hard to deny that the demise of the world of Giles-Marty is rendered

with certain notes of elegiac pastoral, but roles of pastoral elements in the novel are much more complex and delicate. When Grace was separated from her husband, pastoral diction and troupes dramatize her romantic idealization of Giles which is not completely false but far from being true-to-life. What is more important, with the aid of modified pastoral atmospheres, the common people's labouring reality is vividly foregrounded against the upper-class ethos of Grace-Fitzpiers, which leads to Hardy's most impressive poetic achievements in his fiction. In conclusion, we can say that literary experiments employing different modes — pastoral, melodrama, comedy, and realism — in *The Woodlanders* contribute to presenting a truly Sophoclean tragedy of Hintock people as the narrator asserts.

Keywords: Thomas Hardy, *The Woodlanders*, melodrama, pastoral, realism, tragedy